

부산 6대 종교지도자들

정신문화 회복운동 펼쳐



지난 6월에 열린 세계평화 기원 음악회에서 6대 종교 지도자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노래하고 있다.

물질만능, 생명 경시 현상의 병폐를 '우리 문화 뿌리 찾기'로 해결하기 위해 부산의 6대 종교 지도자가 팔을 걷고 나섰다. 다종교 시대를 맞아 종교간 화합과 공동선 실천에 뜻을 모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 정여는)는 내달 '한겨레 문화원(가칭)'을 발족하고 문화 교육 사업을 본격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9월 7-8일 양일간 삼량천 여정사에서 각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할 가운데 '한겨레 문화원'의 조직 구성과 향후 사업 방향 등을 논의한다.

지난 8월 11일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이미 좌담회를 갖고 문화원 발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터라 이날 논의를 통해 문화원 개원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날 모임에는 천주교 김계춘 신부(반여성당), 정여스님(여여선원 선원장), 한파스

님(가야불교문화원 이사장), 월강 스님(금어사 주지), 신준성 회장(성균관 부산시 유도회), 천도교 김성수 도총, 원불교 남궁성 교무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지혜

지도자가 합세하면서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로 이름을 바꾸고 종교간 교류와 화해를 위한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가양성당, 만덕성당, 여여선원을 오가며 가진 작은 음악회, 시낭송회 등으로 심성을 아름답게 가꾸는 문화 행사에 주력해오던 종교 지도자들이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전통문화에서 찾아보자는데 뜻을 모으면서 '한겨레 문화원' 발족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겨레 문화원'은 부산불교회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우선적으로 청소년들의 교육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핵가족화로 인해 해체된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프로그램과 예절 교육, 역사 교육, 호 사상 고취 등 우리 민족 고유의 마음가짐을 되찾는 심성 교육에 각 종교 지도자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계간지 발간, 한민족 뿌리 찾기 정신문화 포럼, 인간성 회복을 위한 생명윤리운동 전개 등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 맑고 순수한 마음이 만들어가는 세상 가꾸기에 힘을 모으게 된다.

공동선 실천 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정여스님은 "배척하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그것이 바로 보살심"이라며 "한겨레 문화원은 한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되찾는 운동본부로 우리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풀어가는 맑은 심성의 사람을 키워내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pia.com

'한겨레 문화원' 발족 앞두고 사업 논의 청소년 위한 예절 역사孝교육 등 계획 계간지 발간, 한민족 뿌리찾기도 전개

농촌 살리고 불자들 건강 챙기고

부산 흥법사 "친환경 농산물로 공양 올리자" 캠페인

부산 흥법사(주지 심산)는 8월 19일 정성스런 공양물을 올리며 선망부모를 천도하는 백중을 맞아,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하자는 색다른 실천 운동을 시작했다.

인드라망 생명공동체가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실천 협약'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이 참석해 친환경 공양미 올리기 실천의 의미를 전달했다.

도법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장 절실하게 느낀 문제점은 농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친환경농산물로 공양을 올리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법사는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친환경 농산물로 생산되는 남원 실상사 인근의 농가 쌀을 공급받아 불단에 올림으로써 농촌도 살리고 불자들의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



친환경 공양미 실천 협약식에 참석한 인드라망 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이 법문하고 있다.

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친환경 공양미를 불단에 올리는 것은 죽어가는 우리의 농토를 살리고 어려움에 빠진 농촌을 돕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영천 거조암 나한재 복원

고려이후 700여년 만에 10월 22일 영산전서 봉행

고려시대 이후 사라졌던 나한재가 복원된다.

나한기도 도량으로 잘 알려진 영천 팔공산 거조암(주지 현승)은 고려이후 700여 년간 단절됐던 나한재를 되살려 10월 22일 오전 10시 거조암 영산전(국보 제14호)에서 봉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나한이란 '세상의 존경을 받은 만한 자'라는 뜻으로, '공양과 보시를 받

을 만한 수행자', '최고의 경지에 도달한 성자'라는 뜻으로 아라한을 줄여서 부른 말이다. 당나라 현장 스님의 <대아라한 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에 따르면 '스님들을 위하여 큰 법회나 5년마다 무차대회를 열면 삼유나한과 권속들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공양을 받으며 시주자에게 커다란 과보를 얻도록 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나한재가 본격적으로 봉행된 것은 고려 때로, 나한재를 봉행하여 기우(祈雨)와 구복(求福) 국난극복 등을 기원했다.

거조암은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혼란

한 시기에 '정법의 시대에는 불교를 지키고, 말법의 시대에는 불자들의 복원이 되어 열반의 과보를 얻게 했다'는 나한 사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한재를 복원 봉행하게 됐다"며 "정체성 상실과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큰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한재는 법요식에 이어 명종, 불륜루, 신중작법, 상단권공, 나한권공, 나한 육법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국악인구 인기 가수 등이 출연하는 축하음악회도 열릴 예정이다.

거조암 영산전은 526분의 석조나한상을 모시고 있는 전각으로 정면 7칸, 측면 4칸의 국내 최대규모를 자랑한다. (054)335-1369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산사의 하룻밤' 인터넷보다 신나요!

금정청소년수련관, 초등학생 위한 사찰체험



탁본시간 먹물을 조심스럽게 묻혀 무늬를 찍어내며 아이들이 전통 문화의 멋스러움을 체험했다.

평소 같으면 인터넷을 볼때고 게임과 씨름 하고 있을 주말, 승채(금양초 6)는 법어사 금강암(주지 정만)에 올랐다. 20, 21일 이틀 동안 금강암에서 열리는 초등학생 산사체험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이 마련한 이번 초등학생 산사체험은 불교계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 중 처음으로 청소년들

을 산사로 초청, 산사체험 행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산사의 생활을 이해한다는 취지에 맞춰 스님과 함께하는 대화, 참선 등에 비중을 두고 진행됐다.

산사에서 하룻밤을 보낸 둘째 날, 아이들은 "친구들과 등도 만들고 단주도 만들면서 보낸 시간이 참 즐거웠다"며 "다시 오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승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었지만 새벽 숲이 너무 멋져서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산사체험뿐 아니라 농촌 체험 등으로 도심의 아이들이 평소 접할 수 없는 전통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공동체의 의미를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법원사 15회째 백고좌법회

8월 20일, 대구 수성구 파동 법원사(주지 실상) 제15회 백고좌법회 입제식에 300여명의 불자가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연건평 삼천여 평 규모의 불교종합복지관 불사를 앞두고 봉행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11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 부산 화엄사 회주 각성 스님,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 등이 참석해 <화엄경>과 <법화경> 그리고 계율에 대한 법문을 전할 예정이다. 법원사는 1994년 이후 매년 한차례 이상 백고좌법회를 봉행해왔다. (053)766-3747

배지선 기자

대구BBS 금호문화원 개원

대구불교방송이 대구시 중구 대봉동에 금호문화원(원장 이용네)을 개원했다. 8월 28일 고복식을 갖고 9월 1일부터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을 비롯한 활동을 들어갈 예정이다.

금호문화원은 산하에 신학교, 예절학교, 문예학교를 두고 지역불교문화예술의 대중화를 꾀하며 신앙생활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53)255-6604 배지선 기자

정치·경제·웰빙이 불교와 만나면...

고심정사 불교대학 강좌 개설

부산 중앙동 도심에 위치한 고심정사(주지 원태)에서 문을 여는 고심정사 불교대학(학장 원태)은 현대사회의 제 분야에 불교 교리를 적용하고 현실에 맞는 불교 실행법을 소개하는 참신한 교과 과정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9월 6일 개강하는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주간반은 매주 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야간반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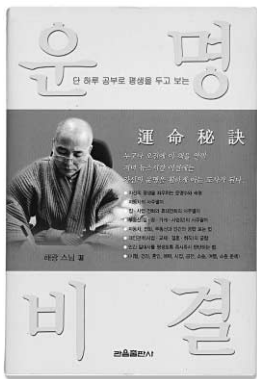
된다.

고심정사 불교대학은 '불교와 경제', '불교와 여성', '불교와 웰빙' 등의 교과목 외에도 '아름다운 불교 시와 예술', '불교와 문화' 등 불경과 불교의 문학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교과목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잇기 위해 개원한 고심정사 도량 창건의 뜻에 맞게 '성철 스님의 사상 강좌'와 '불교 교리', '불교의 의례와 사찰 구조',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 등의 교과목도 포함돼 있다. (051)464-8450

천미희 기자

운명비결 저자 해광스님 직강 (개인교수)

초칠일에 눈을 떠라!



- 천장비기(하늘이 숨기고 땅이 감추는)의 운명학
- 명리와 육효의 조화와 완벽한 해석
- 전문가를 위한 운명비결 전수

단, 명리, 주역 등 일체의 역학을 실 배워 그 관계를 스스로 벗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학문에 취 범접치 마시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수 없이 요구해 온 운명비결 전수 희망자들을 위해 오랜 숙고 하에 운명비결을 전수하기로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 안내를 합니다.

- 수강신청 : 수강접수 및 등록
- 강의일자 조정 및 환불 (등록후 일정 조정)
- 수강자격 : 스님, 포교사, 법사, 운명상담소 운영자
- ※ 시작에서 수료까지 6박 7일
- 문의전화 : 010-6252-5247 (오후 1시-7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옥천범음대학 호적반(태평소) 특강 모집요강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지정되어 불교 교역자로서 의전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계승 전수하는 대학으로 회원 및 학인들의 요청에 의하여 신학기에는 작법반을 신설하여 좋은 호평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설에 중점을 두고 후기학기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호적반(태평소)을 특별히 신설개강하게 되었으니 등록바랍니다.

1. 모집내용 : 실기강의

| 특 강 | 교 수 진 | 모집인원 |
|----------|-----------|------|
| 호적반(태평소) | 준보유자 김 구해 | 15명 |

2. 응시자격

- 천수바라, 도량계, 법주 할 수 있는 자 ※ 영산재 보존회 회장(구해스님) 옥천범음대학장(일운스님) 심사 후 입학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3) 증명사진 3매 (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8월 25일 - 9월 7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옥천범음대학 교무처

6. 입시자격 시험일 : 2005년 9월 8일 오후 1시 봉원사 설법전

7. 합 격 자 발 표 : 2005년 9월 12일

8. 입 학 일 : 2005년 9월 15일

- 9. 문 의 처 : ☎2020 - ☎50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 옥천범음대 02)392-3234
- 종 무 소 02)392-3007~8 / 팩스 02)393-9450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옥천범음대학